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과제

鄭 範 護
(翰林大學校)

1. 英才를 얻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영재 자신에게는 그가 영재인 것이 행복이건 불행이건 간에, 그는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큰 행복 작은 행복을 안겨다 준다. 특히 가속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속출하는 ‘새로운 사태’들은 언제나 ‘새로운’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영재들이 더 필요해진다. 또한 현재도 미래도 국제경쟁은 점점 더 여러 영역의 창의력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판국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재의 출현을 바라며, 어떻게 영재를 ‘教育’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궁리도 한다.

그러나 의외로 창조적인 영재 자신은 보통 기준으로서는 도리어 불행일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영재의 싹들은 뽕뽕 숨어서 잘 나타나지 못할 뿐더러, 그런 교육 ‘체제’에서는 도리어 시들어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시골 외딴 학교에 풍부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풍부한 장학금으로 ‘영재’들을 모아 노벨상을 목표로 주야로 빈틈없는 프로그램에 따라 감시까지 해 가면서 맹렬히 공부도 하게 하고 몸단련도 하고....하는 학교 이야기다. 이런 학교가 있다면 그것은 가히 狂信的인 ‘영재교육’이고, 영재가 생겨날 리도 만무지만 도리어 일종의 인권유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십여 년 전 노벨상 사무국장이 서울을 다녀갔다. 이한 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한국도 이만큼 경제발전이 되었으니 노벨상 타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첩경은 도리어 노벨상 욕심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저 과학이 미치도록 재미있어서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스스로 침식을 잊고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길이다. 그러면 어느날 자연히 노벨상이 찾아온다.”

심마니들에게 한 정설이 있다. 오늘은 꼭 산삼을 찾아내겠다고 눈이 별경게 뒤지고 다니는 심마니에게 절대 산삼이 보이지 않는다. 수도하는 자세로 산의 정기를 타고 흐르듯 헤매는 마음 가난한 사람에게만 산삼은 홀연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2. 우선 우리는 비슷한 말인 天才, 秀才, 英才를 우리 나름으로 가려서 쓰기로 한다.

먼저, 天才란 아주 어릴 때 예컨대 3, 4세 때 벌써 그야말로 천부의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해 두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차르트다. 그는 네 살때 벌써 훌륭한 작곡을 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엄청난 양의 희한한 음악을 남겼다. 그는 많은 꽃을 피워냈다. 그래서 '천재'이면서 '영재'가 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도 20년전 쯤인가 IQ가 240인가 280인가 된다는 김아무개라는 '신동' 천재가 나와서 기네스북까지 올랐다고 세상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른이 되었을 이 김군의 행적이나 업적을 아는 사람은 없다. 천재가 凡才가 되고 말았다.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적인 조합 또는 어떤 아주 희한한 조합으로 인해서 이런 천부의 천재가 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아이가 어려서 '신동'이나 천재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커서 대성하거나 더구나 모차르트처럼 꽃을 피우는 영재가 되는 경우는 도리어 드물다. 대개는 자라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린다.

대부분의 영재들은 어려서는 지진야로 의심받을 정도로 덩덤한 아이였던 아인슈타인처럼, 훗날 뒤에 꽃봉오리를 드러내는 晩成인 경우가 많다. (다만 후에 재론하겠지만, 어려서 신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어려서 아무것도 안했다는 뜻은 아니다.)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 천재일 필요도 없고, 천재가 영재로서 꽃피기에도 까다로운 조건들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에서 이런 천재나 신동은 뻔다.

다음, 秀才는 학교공부에서 '빼어난 아이들'이라고 규정하고, 이 또한 우리의 논의에서는 뻔다. 학교공부에서 배울 것을 꼬박꼬박 잘 배우고 잘 외우고 시험에서 正答을 잘 맞추고 그래서 학교에서 1, 2등, 수능고사에서 전국 1, 2등, 서울대학입시에서 1, 2등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말하자면, '시험선수'들이다.

이들은 수재일지는 모르나 영재는 아니다. 영재는 그 소재가 작건 크건 소박하건 복잡하건 간에 이제껏 '없던' 문제에서 '없던' 방법으로 '없던' 답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있는' 것을 외우고 찾아내고 맞추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수재들은 훌륭한 官僚나 사무가로 출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장에, 나라에, 세계에, 인류문명에 큰 또는 작은 보탬이 되는 '꽃'을 선사하

지는 못한다.

英才는 꽃부리 ‘英’자의 뜻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자. 그 꽃이란 어떤 특정 문화영역에서 이룬 창의적 성취를 말한다. 그 꽃은 작고 청초한 들꽃일 수도 있고 크고 화려한 장미 같은 꽃일 수도 있다. 그 꽃은 과학에서 문학에서 사상에서 음악에서 미술에서 무용에서 건축에서 기술에서 스포츠에서 기업에서 정치에서.... 그 술한 인간활동, 문화활동 영역에서 피울 수 있다.

꽃피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적 생산, 創作을 말한다. 자기 힘으로 어떤 희한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창작이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창작은 반드시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 같은 巨匠처럼 거창한 창작일 필요는 없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도 창작이지만, 어떤 중학생이 적절한 지도하에 피타고라스 원리를 증명하는 방법을 혼자 알아내고 무릎을 치면서 좋아한다면 그것도 한 창작이다. 피카소의 “게르리카”도 창작이지만, 세 살짜리가 혼자 그린 희한하고 독특한 닭 그림도 창작이다. 기실 피카소의 그림과 세 살짜리의 그림은 닭은 닭이 많다. 우리는 이런 창작의 영재에 관심이 있다.

3. 창작적 영재에 관한 꽤 인상적인 두 研究를 간단히 살펴보자. 하나는 볼룸의 연구고 또 하나는 가아드너의 연구다.

볼룸은 수영선수, 테니스선수, 피아니스트, 조각가, 수학자, 신경학자 등 스포츠, 예술, 학문의 영역에서 올림픽 입상, 노벨상 수상 등 세계수준의 성취를 이룬 120명의 영재들의 긴 發達史의 사례 연구에서 어느 영역의 영재에나 공통되는 몇가지 결론을 추출했다.

즉

- (1) 영재는 그 ‘활동’(피아노면 피아노, 수학이면 수학)을 아주 어려서 시작했다. 모차르트는 네 살에 작곡을 했고, 테니스의 그라프는 네 살에 테니스를 시작했으며, 다아윈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식물채집에 따라다녔다.
- (2) 영재는 그 활동을 좋아하고 그 활동에 어느 정도 조예도 있는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이 ‘본’이 되어 본을 닮으려는 同一視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그 활동에 도입되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음악교사였고, 그라프도 아버지가 테니스 선수였다. 바이올린의 장영주는 부모가 다 음악가고 바리톤 김동규는 어머니가 성악가다.
- (3) 그의 집에서는 그 활동이 유별난 일이 아닐, 아침이면 세수하고 수저로 밥먹듯이, 삶에서 으레 해야 하는 그야말로 茶飯事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짓가락 쓰기가 힘들고 유난스러운 일이지만, 나중엔 다반사가 되는 것과 같다. 안하면 도리어 거북해진다. 여기에서 기초적인 動機가 형성된다.

- (4) 세 발달단계,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에서 개인적으로 私事할 수 있었던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다. 세 단계의 각 스승에게서 그는 각각 기초적 기능, 전문적 기량,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스타일’과 ‘철학’을 배워 대성한다.
- (5) 그 활동에 몰입하는 작업시간, 연습량은 엄청나게 많았다. 피아노면 피아노, 수영이면 수영을 대략 유아기엔 매일 3, 4시간, 아동기엔 5, 6시간, 청년기인 대성기엔 7, 8시간 이상의 ‘고된’ 연습시간을 경주한다. 그 ‘고역’을 이겨내는 데엔 어려서의 동기 형성과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 (6) 영재는 지극히 自律的이고 타율은 필요도 없고 도리어 해가 된다. 그는 이래라 저래서 하는 타율적 명령을 아주 싫어한다. 흥이 나야 일하고 “명석 깔아놓으면 안한다.” 서두에 예를 든 ‘영재고등학교’는 이 점에서 영재교육일 수가 없다.
- (7) 영재는 일의 쓸모보다 일의 재미에 몰려있다. 일 때문에 돈이 벌려진다는지, 출세한다는지는 안중에 없다. 미사여구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등을 내세워 온 그런 구호도 그에겐 별 효과가 없다. 우선 일 자체에 매료되어 있을 뿐이다. 노벨상은 관심 밖이다. 이 점에서도 그 ‘영재 고등학교’는 영재교육이 아니다.
- (8) 영재의 가정에서는 거의 반드시 ‘희생적’인 후원자 또는 후견인이 있다. 영재는 그의 활동 영역의 재능을 빼고는 아무 물정을 모르는 어린애와 같아서 그를 어린애처럼 돌볼 사람이 있어야 한다. 때로 이런 후견인은 자기의 삶은 영재를 위해서 포기한다. 그리고 영재는 “짜지가 않다.” 영재가 되기까지엔 활동기구라 스승이라 생활비라 많은 돈의 후원도 있어야 한다.

다음에 가아드너의 연구를 요약해 보자. 가아드너는 일찌기 IQ와 같은 단일 일반지능대신 多重知能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그의 다중지능이론에 맞게 각 지능영역을 대표하는 巨匠 7명을 집중적으로 사례연구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 과학자 아인슈타인, 화가 피카소,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시인 엘리엇, 무용가 그래엄, 정치가 간디의 일곱 사람이다. 영역간에 물론 차이는 많지만, 여러 거장들의 특징과 행적에 몇가지 일반화는 가능했다. 아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거장들은 대개 首都같은 권력의 중심지에 좀 떨어진 곳,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정도 후미진 곳은 아닌 데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장성하면서 ‘벗’을 찾아 중심지로 옮겨간다.
- (2) 가정은 아주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다. 가정 분위기는 따뜻하기보다 엄격한 편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친근하면서도 때로는 미워하는 相反된 감정을 갖는다. 부모는 아주 높은 교육은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아이들의 성취에는 높은 期待를 가지고 있으며, 열심히 어려운 일을 해내는 克己를 귀하게 여긴다. 가정은 꼭 종교적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도덕적이고 양심을 존중한다.
- (3) 거장들은 아주 어려서 천재나 신동이라는 소리는 안 들지만, 대개는 아동기까지는 재능을 드러낸다. 그리고 청년기에 이르면 대개는 무서운 집중적인 ‘10년 공부’를 거쳐 그의 활동영역의

최전방에 자리하게 된다. 그 동안 그는 가족에게서 배우고 작은 지역, 넓은 지역의 전문가에게서 배운다. 그리고 나면 그는 그의 활동영역이 왕성한 도시로 '벧'을 찾아 옮겨가고 무리와 모임도 만든다.

(4) 그는 그런 무리 속에서 자기가 추구해야 할 흥미와 과제와 사명을 찾는다. 이때 그는 孤獨에 들어가고 혼자서 일한다. 그런 속에서 그는 어떤 큰 '창작적 돌파구'에 이른다. 이 때만은 그렇게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그는 가까운 타인에게서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후견과 지지를 갈구한다. 지지가 없으면 돌파가 아니라 파멸해 버릴 수도 있다.

(5) 이들 거장들은 성격적으로는 영재답게 자신감에 넘치고, 주도면밀하며, 非慣習的이고, 부지런하며, 일에 흠뻑 빠져든다. 社交나 여타 취미활동은 관심 밖이다. 이들의 넘치는 자신감이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도취, 나아가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남에게 관심이 없었고, 피카소는 아예 거의 남에게 사디즘적이었다.

(6) 이들 거장들의 두드러진 한 특징은 어떤 점에서 다 '어린아이 같다'는 점이다. 어린아이다음과 어른스러움의 특별한 혼합이 영재를 만든다. 프로이드는 어린아이들의 욕망, 환상, 꿈에 관심을 가졌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끝없는 호기심, 관행의 무시와 같은 '어린아이 같음'을 사랑했다. (기실 그의 사진의 얼굴은 늙은 童顏이다.) 피카소는 어린아이 같음을 넘어서 아예 유치하기까지 했다. 어린아이처럼 까불기도 하고, 물질적 대인적 욕심도 어린아이처럼 사나웠고, 특히 그의 그림은 어린이의 그림에서처럼 가장 소박하고 기저적인 형태의 파악이 주제였다.

(7) 거장들의 가정은 대개 엄격했고 도덕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이었으나, 결국 그들은 이런 제압과 타율에 반항한다. 피카소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고, 간디는 그의 힌두교 전통을 거부했다. 거장들은 관습과 전통과 권위와 제압과 타율에 반항한다.

(8) 거장들은 권력의 중심, 영화의 중심, 관행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周邊에 있었고 그 주변성을 사랑했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드는 독일인 속에서 소외된 유대인이었다.(한국의 경우에도 實學派의 창조는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난' 남인들의 소산이었다.)

(9) 순풍에 돛을 단 듯 자라나는 영재는 도리어 예외고, 대개 영재는 어떤 逆風, 갈등, 不協和를 경험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자라난다. 그런 불협화는 밖으로 사회와 시류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안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다. 그것이 고독, 소외, 반항, 주변성일 수도 있다. 영재는 도리어 이런 불협화를 어떤 모양으로든 극복하는 데에서 탄생한다. 그것은 어쩌면 불가피하다. 영재는 관심, 관행, 상식 등 기존체제에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기 때문이다.

(10) 영재들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삶의 완벽함보다는 일의 완벽함"을 찾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파우스트가 젊음과 지식과 마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 팔아버린 것처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삶의 완벽을 버릴테니 대신 일의 완벽으로 바꾸자는 일종의 "파우스트적 거래"에 자신을 맨다. 그래서 성생활을 포기하는 경우, 친구를 사귀지 않을 경우, 기타 여러 가지 금욕주의로 거의 自虐을 일삼기도 한다. 영재는 값진 대가로 탄생한다.

4. 이 두 연구에 나타난 영재들의 이런 특징들은 여러 教育的 示唆을 던진다.

그러나 그 시사들은 정말 우리가 영재를 교육해 내기를 바란다면, 한 조항 한 조항이 다 통상의 교육관례를 크게 벗어나야 함을 말해준다. 그 시사 모두를 여기에서 음미할 수는 없고 그 일은 독자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다만 몇가지만 간추려 본다.

상황에 대한 어설픈 난관론이나 어설픈 비관론보다는 도리어 철저한 비관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미로 속에서 정말 살 길을 더 절박하게 찾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대로의 한국의 가정, 한국의 학교, 한국의 사회에서는 창조적 영재는 출현하지도 못하고 길러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다 드물게 움트려는 ‘천재’와 ‘영재’의 싹은 모진 조건속에서 곧 짓밟히고 시들어가고, 기껏해야 학교공부나 시험공부나 잘하는 아주 비창조적인 출세지향의 ‘수재’만 길러낼 뿐이고, 더구나 그런 ‘수재’를 영재로 오인마저 하고 있다는 철저한 비관론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대세속에서 예외가 있고 예외가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다.

5. 지금의 한국 家庭에서도 영재는 길러지지 않는다.

우선 한국의 부모는 너무 出世指向的이다. 아이의 출세에만 관심이 많고 아이가 하는 일도 출세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는 피아노면 피아노, 공부면 공부, 그일 자체에 반해있고 미쳐있는 課業指向的인 사람이다. 그에게 출세나 치부는 일단 관심밖이다.

한국의 부모는 ‘공부’만 성화할 뿐, 여타는 過剩保護로 아이를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으로는 망나니를 길러내고 있다. 영재는 도덕적으로 적절하게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다. 영재는 후에 엄청난 ‘연습시간’을 참아내고, 주변성과 고독, 역풍과 불협화, ‘파우스트적’ 자학도 이겨내야 한다. 적절한 좌절의 경험으로 철저하게 단련되어 있지 않은 정서적, 도덕적 弱骨로서는 이런 부담을 이겨내는 영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는 장사속에 휘말려 상품화된 “IQ 훈련 프로그램”, “재능 프로그램”, 각종 “과외”에 아이들을 매어 둘 뿐 아이들을 넓은 자연과 인간의 세계 속에서 마음껏 ‘놀게’하지를 않는다. 그들은 아이들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흠뻑 젖어들면서 낮에도 꿈꾸고 밤에도 꿈꾸며 논다는 경험의 가치를 모른다. 건조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공부’가 아닌 이런 풍부한 幼兒期의 經驗의 의식적 무의식적 기억이 나중에 커서 영재의 創作的인 아이디어의 큰 원천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아동 시절 이런 꿈을 꾸었다. 소년 아인슈타인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점점 속도를 빨리 해서 날았다. 그러자 옆으로 빛이 지나갔다. 그는 그 빛을 따라 잡으려 속도를 자꾸 올렸다. 마침내 빛의 속도를 따라잡는 순간 세상이 사라져 버렸다. 이 꿈이 후에 그의 특수상대성원리의

전조였다.

한국의 부모는 자기는 피아노 칠 줄 모르면서 또 치지도 않으면서 “소질있어 보인다”고 아이에게만 피아노 치라고 독촉한다. 자기는 밤낮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으면서 아이에게만 공부하라고 감시한다. 아이들은 ‘본’이 있고 모델 퍼어슨이 있어야 그 일의 動機를 배운다. 영재를 기르려면 부모가 먼저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 자신이 음악 또는 그림 또는 시 또는 채집 또는 독서에 젖을 줄 알아야 한다. 개인도 나라도 빈곤에서 탈출하고 출세하려 안간힘을 쓰다보니 한국의 부모는 이런 ‘문화활동’에는 삭막해졌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그 정도에 따라 영재 출현은 난망이다.

어떤 두 아이의 엄마는 “과외”도 안 시키고 돈도 안쓰고 자기가 힘들여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하라고 성화도 하지 않고 두 아이를 다 쉽게 서울대학에 넣었다. 터울이 받은 두 아이의 유아 시절에 엄마는 대학원에 다니느라 틈만 있으면 책상 앞에서 책과 씨름했다. 두 아이는 으레 매일 수저로 밥먹어야 하듯 책을 ‘먹어야’하는 것이 삶인 줄 알았던 셈이다.

영재는 “비싸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심리적 지지와 후원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영재 중에는 그 활동의 大成과 지속을 위해서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의 헌신적 희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영재 중에는 결국 기성체제 부정의 일부로 부모에 반항하고 부모에게서 떠나가는 경우도 많다. 또 영재는 통상 기준으로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여러 희생의 각오없이 선불리 영재 출현을 바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6. 특히 지금의 한국의 學校는 철저하게 영재 출현 조건들의 정반대를 펼쳐 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논의는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도리어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영재를 교육하려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어찌다 트려는 영재의 싹을 밟아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영재교육 방안으로 제기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특수고등학교, 월반제, 숙진제 등 다 ‘수재’교육은 될지는 몰라도 영재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말할나위도 없이 아직도 한국의 학교를 모질게 휩쓸고 있는 지식위주, 기억위주, 정답 찾기 시험위주의 人試敎育 상황은 창의적인 영재교육의 조건과는 정반대다. 극단으로 말해서 본래 全人敎育은 학교교육의 몫이고 특수 재능의 英才敎育은 가정의 몫이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펴놓는 것이 동시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영재교육의 반려가 되는 길이다. 입시교육은 전인교육에도 해독이고 영재교육에는 더 큰 해독이다. 그 동안 수십 년 이런 학교 이런 교육에서 그나마 몇몇 가정에서 길러놓은 영재의 싹들이 얼마나 많이 꽃도 못 피우고 짓밟혀 쓰러져 갔는지 가상적으로라도 상도해 볼 만하다.

그래도 어린 나이 때문에 발랄하고 자유분방하던 好奇心, 想像力, 創意力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도리어 '정답' 아닌 '誤答'으로 취급되고 심하게는 피짜나 이탈, 반항이나 죄악으로까지 몰린다. 아이들은 곧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궁급해하고 상상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이 학교에선 해롭고 불리하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정이 영재교육에 관심과 미련이 있다면, 우리는 우선 먼저 모든 것에 앞서 입시교육부터 잠재우는 데 전력해야 한다. 입시교육이 버티고 있는 동안엔 영재교육 운운은 년센스일 뿐이다.

영재는 학교의 정규 교과시간, 正課 시간에서 자라나지는 않는다. 정과를 잘하는 아이는 잘해야 영재 아닌 수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학교에서 영재를 기를 수 있는 길은 어려 스포츠, 예술, 학과에 걸쳐 방과후에 벌어지는 또는 벌어져야 하는 다양한 課外活動이다. 그래도 어떤 영역의 영재의 싹이 터서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정과 수업시간을 싫어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쫓이 쫓아서 못건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공부, 정과공부는 꾸중 듣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해 두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마자 쏘살같이 집에 가서 자기 일에 열중한다.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과외활동 시간, 시설, 편의가 있다면 아이는 학교에 남고 학교가 좋아지게도 된다. 한국의 학교엔 그런 과외활동의 시간도 시설도 교사도 거의 없는 셈이고 아이들에게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주지 않는다.

이런 과외활동은 그래도 학교가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닐, 그 이전에 학교가 아이들의 특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길이다. 적성검사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한 방법일 뿐이다. 동시에 과외활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고, 동급생, 상·하급생과 어울리고 교사·학생 관계를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정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우선 다양한 과외활동의 제도, 프로그램, 시간, 시설, 교사부터 마련해야 한다.

영재교육의 要諦는 個別教授다. 집에 개인교사가 없으면 학교에서 個別化된 교육 기회가 있어야 한다. 피아노에서도 테니스에서도 물리실험에서도 그 대성에는 다 개별교수가 필요하다. 재능이 무르무럭 자라나려면 그때그때 재능의 수준과 개인적 장단을 알아서 그것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또 영재는 대개 한 둘의 벗은 찾지만 集團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본래 창의, 창작이란 집단 의 사고를 넘어서려는 노력이고 보면, 영재들의 이런 집단 기피증은 당연하다. 학교생활의 여기저기에 깃들어있는 심한 集團主義는 영재교육에 反立的이다. 영재의 싹들은 특수고등학교, 특수학급, 특별반이라는 집단으로 형성되어 들어가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고 달리 별다른 개별화가 없다면 그때부터 그 싹은 사그러진다. 그보다는 도리어 여러 가지 여러 정도의 능력들이 모인 정상적인 보통의 학급에서도 개별화 교수의 기회를 늘여가는 것이 영재교육의 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영재들은 他律을 싫어한다. 영재는 가끔 다른 사람의 지지와 후원과 격려를 바라기는 한다. 특히 그 나름으로 일종의 회한한 '破天荒'의 창조에 이르려는 고된 진통기에는 더 그렇다. 그러나 남이 하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아주 싫어한다. 본래 창작이란 외부의 刺戟에 따라 진행되는 자극발생적인 것이기 보다는 내부의 自我에서 발단하는 '자아발생적'인 동기와 과정에 의한 산출인 것이라면, 그래서 작고 큰 창작은 동시에 自我의 表現이라면, 영재들의 타율에

대한 혐오는 아주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에는 심한 여러 가지 타율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옛 일제 군국주의의 편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체벌이라는 폭력이 “교편”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가고 있는 공포의 權威主義의 분위기도 짙다. “학교가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모든 아이의 교육과정, 학습내용, 학습활동의 구석구석까지 劃一化되어 있어서는 개성있는 영재들의 출현은 바랄 수 없다. 거기에 입시공부, 시험공부도 무서운 타율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영재의 싹들은 자연 약간 ‘奇人’이고 엉뚱하고 ‘예외적’이며 비추종적이고 반항적이다. 이런 아이들을 관용하지 못하는 획일주의에서는 영재의 싹은 시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 한국의 학교에서 영재들의 출현을 바란다면, 우선 입시준비교육체제, 과외활동의 불모지,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와 획일주의로 인한 겹겹의 타율 체제의 극복·청산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학교는 영재의 촉진보다 영재의 위축에 더 ‘공헌’할 것이고, 그래도 어쩌다 나타나는 영재는 ‘학교 때문에’ 길러진 사람이 아닐, ‘학교에도 불구하고’ 길러진 사람일 뿐이다.

7. 지금의 한국의 사회풍토도 영재의 생성과 출현을 어렵게 한다.

한국의 가정도 사회도 한국사회의 일부이고 보면, 전반적인 사회풍토가 앞에서 논한 가정과 학교의 풍토를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최정호 교수가 요하는 한국사회의 祈福思想은 꽤 심각한 음미를 요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는 유, 불, 선, 기독교 등 여러 사상들이 있었으나 그중 두드러진 것의 하나가 富貴壽多男을 바라고 비는 전통적인 기복사상이다. 입시때 절간에서 무당집에서 손 모아 빌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 상징이다. 이런 富貴壽多男이라는 價値 그 중 특히 부와 귀 즉 치부와 출세는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 모든 사회에게 있는 아주 자연적인 가치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 지나치게 다른 가치들을 압도하게 되면 문제는 크다.

이런 富貴壽多男의 기복 차기들에는 “남의 不在”, “超越의 不在”라는 특징이 있다. 즉 富貴壽多男은 다 ‘나를 위한’, 잘해야 우리 집안을 위한 가치일 뿐 남의 존재, 남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어 있다. 또 富貴壽多男은 소박하고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일 뿐 좀더 초월적인 가치들에겐 眞善美, 인의예지신, 정의, 박애, 헌신 등 사람들의 격조있는 공동생활에 필요하고 조금은 자연적 욕망을 초월해야 할 가치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현실인 정도에 따라 인의예지신은 체쳐놓고 ‘공부’, ‘입시’, ‘출세’에만 집착하는 가정풍토 그리고 학교풍토도 그 흐름이 흘러들어온 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복사상은 ‘수재’ 출현엔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영재’ 출현에 특히 불리한 풍토다. 우선 영재는 세속적인 출세와 치부가 아니고 바로 그 조금은 격조높은 진, 선, 미 등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작고 큰 진리를 찾고 참됨을 찾고 아름다움을 찾

으며 멋을 찾고 어떤 높은 '境地'를 찾는 데에 우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는 때만 되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열띤 입시상황 보도, '입각'보도는 세계에 유례없이 요란하고 자세하고 길다. 이른바 '배금주의'는 이해하려는 눈으로 보아도 좀 심하다. 이렇게 일변도적으로 출세와 치부가 강조되는 사회는 특수재능의 영재가 싹트기 어려운 불모지일 수밖에 없다.

이런 풍토는 동시에 한 문화활동 예컨대 과학 또는 예술을 그 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 멋, 오묘, 보람 등의 內在的 價値보다는 그 활동을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출세, 치부, 영예 등 外在的 價値가 더 중시되는 풍토와도 연결이 된다. 수학이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부하고, 과학은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벨상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은 "염불보다 잣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니, 염불에 신이 들릴 리가 없고 수학 공부나 과학공부 그 자체에 신이 들릴 리가 없다. 빈곤에서 탈출하려 학문이건 교육이건 도덕이건 거의 모두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역사 때문인지, 아직도 우리사회엔 질은 手段主義的 풍토가 있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영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이런 수단주의적 발상인 셈이다.

이런 관찰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多價値 社會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장관, 사장, 국회의원 등으로의 출세와 치부의 가치만 높게 치솟아 있고, 여타 학문, 미술, 기술, 문학 등의 가치는 수단적 위치에 잔잔하게 엎드려 있는 셈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여간한 각오 없이는 과학자, 학자, 미술가, 기술자, 문학자 등에서 영재의 길을 택할 엄두를 못낸다.

창의가 '새 것'이라고 해서 순 공상으로만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서로 다른 多樣, 다원, 다형, 다종들이 寬容되고 그들의 자유롭고 開放的인 교호작용 속에서 더 창출된다. '一樣的'이고 閉鎖的인 사회는 창의적 영재 출현에는 극히 불리하다. 각종 폐쇄성 예를 들어 대학에서 한 학과의 교수들이 '동창' 출신으로 뭉쳐있고 총장은 꼭 그 대학의 교수 중에서 뽑아야 하며, 지역감정으로 국회의원마저도 '청색' '녹색' '황색'으로 완연히 갈라져야 하고, 꼭 '단일민족'임을 자랑해야 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의 진입을 싫어하는 폐쇄적 풍토는 창작에 필요한 색다른 아이디어의 유입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새 아이디어도 잘 용납하지 못한다. 창조적인 영재는 언제나 다소간 애매하고 기이하고 약간은 언제나 비관행적이고 반항적이다. 즉 어느 정도 반드시 일종의 異邦人이다. 폐쇄성이 짙은 정도에 따라 영재의 싹은 그만큼 이단시되고 자라나기가 어렵다.

특히 不同意의 자유, 不同調의 자유는 창의적 생명이다. 그 아무리 정당하고 신성해 보이는 것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집단의 관행적 사고방식에 동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음으로 양으로 부정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창의적인 영재는 그 싹을 드러내지 못한다. 과학, 미술, 음악, 문학 등 모든 영역에서 창작적 발견이나 산출은 천동설에 부동의한 지동설처럼 거의 모두가 현존의 이론이나 양식에 대한 부동의, 부동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는 창의적 영재의 출현 조건으로서의 한국의 가정, 학교, 사회의 풍토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끝내 부정적인 비판을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정녕 풍성한 창의적 영재들의 출현을 바란다면 힘써 구축해야 할 조건들을 역설로써 극명하게

들어내기 위함이었다. 차라리 철저한 비판에서 활로를 더 극명하게 찾아보자는 뜻이다.

영재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한 개인으로서는 고도의 인간적 自我實現을 이룩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인류문화의 윤택에 공헌하는 아주 고귀한 존재다. 그러나 그러기에 그 출현은 그 만큼 어렵고, 그 출현 조건 구축 자체도 통상적인 영재교육 아이디어와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영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